

튀빙겐에서 본 한국출판 96년

이중한

서울신문 논설위원·출판평론가

6백년 역사를 가진 독일 튀빙겐대학 앞. 작은 광장과 좁은 골목길들로 이루어진 캠퍼스거리를 11월말 며칠간 걸어볼 시간이 있었다. 여기저기에 아담하고 따뜻한 분위기가 감도는 서점들이 있었다. 철학전문점, 역사전문점, 여성서적전문점, 고본점이 있었고 그 서점의 역사는 모두 1백년 이상 오래된 것이었다.

그중 하나가 바뀌었다. 헤르만 헤세가 1895년부터 1899년까지 서적상으로 일했던 서점은 이 사연을 알리는 동판만이 벽에 남은 채 CD나 테이프 등을 파는 잡화상 같은 것으로 전환돼 있었다. 그 옆 서점에서는 1997년판 헤르만 헤세 달력을 팔고 있었다.

4백년을 기념하는 좀 큰 거리 서점에서는 96년 가을판 신간목록집을 나누어주고 있었는데 그 목록집만 1백 40여페이지에 달했다. 중세의 필사본 필체로 '1596'을 쓰고 '1996'년 표시는 디지털의 낯익은 전자숫자로 쓴 아주 간결한 4백년 표지디자인은 그 거리의 변화를 뛰어넘은 전통의 저항감 같은 것을 아주 잘 이미지화하고 있었다.

내가 가장 분명하게 받은 느낌은 독일의 대학가는 아직 디지털에 호들갑을 떨고 있지 않다는 것이었다. 컴퓨터를 황급히 배우지 않으면 안된다는 무조건적인 추종도 없었고, 책임기가 다소간 줄어들어도 없을 뿐 아니라 서점은 '꽉 찼'과 책에 대한 존중에서

조금도 변하고 있지 않음을 너무 쉽게 알아볼 수 있었다.

나는 독일의 캠퍼스가 아예 컴퓨터세계를 거부하고 있느냐 물어봤다. 물론 그렇지 않았다. 그들은 컴퓨터 시스템 속에 중요한 지적 정보와 자료를 아주 잘 정리하여 천천히 집어넣고 있다. 다시 말해 DB작업에서 뒤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저 이것이든 저것이든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을 뿐이었다. DB는 쓰되 워드 프로세서나 컴퓨터게임에 매달리지 않는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이것은 실상 독일에서만 아니라 세계의 모두가 동의할 만한 컴퓨터사용 원칙일 수 있다. 여하간 튀빙겐에서는 책임는 사람과 서점이 함께 만들어내는 옛문화의 장래가 더 한참 동안 유지돼 갈 것이 분명하다.

1996년 한국의 책임기와 서점은 어떻게 한해를 보냈는가. 나는 이 사연을 반추하고 싶지 않다. 우리의 중요한 출판사 몇곳이 30주년, 25주년, 20주년 기념을 한 것은 아마도 96년 출판계 뉴스에서 의미부여를 받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사회적으로 상당한 화제가 되고 또는 이벤트적 이미지나마 만들었는가. 알다시피 그렇게 된 바는 없다. 이 기념할 만한 출판사들은 지금 단지 점점 더 좁아지는 시장, 더 정확히 말하자면 점점 더 밀려나는 서점의 전시대 한쪽에서 위기라는 말마저 하기 어려운

답답함을 느끼고 있을 터이다. 그런가 하면 좋은책 내기를 노력했던 한 출판사는 한편의 책 때문에 출판사 등록취소를 당하기도 했고, 베스트셀러 언어내기에 도전했던 또 한 중견출판사는 책목록을 안이하게 고른 탓에 신문 사과광고를 내기도 했다.

출판은 올해 그 어느 해보다 자신의 목소리를 잃고 침잠했다. 그 가라앉은 깊이가 너무 커서 출판의 근본적 신념마저 부서지고 있는 것이 아닌지 하는 두려움마저 느끼게 한다. 하지만 기력을 되찾아야 한다. 지난 몇년간은 새로운 장년기를 맞는 시기의 방향이었다고 치부하고 이제부터 정말 어른 다음의 입지(立志)를 찾는 성숙함에 도전해야 할 것이다.

연세대 앞길에서 죽어가는 서점 하나를 되살리자는 운동이 시작되고 있다. 이런 일을 무심히 보아서는 안된다. 이 일에 서점이 아니라 출판사가 나서서 책의 의미를 강조하고 보다 좋은 책의 필요성을 높이며 대학가 지성의 재기(再起)를 돕는 일을 하는 것도 출판의 위신을 다시 세우는 작업이 될 것이다. 이 시대는 이미지가 중요하다. 우리 출판은 그동안 너무 많이, 출판사에 의해서가 아니라 서점에 의해서 파괴되었다.

출판저널

통권 제204호/1996년 12월5일 발행

발행인 — 정진숙
편집인 — 전병석
인쇄인 — 이일수
편집위원 — 권영빈 김문환
 송상용 이중환
편집주간 — 이승우
편집장 — 김지연
기자 — 박남정 마정미
 최성일 이현주
디자인 — 윤정자
사진 — 김지옥

업무부장 — 윤동호
업무·광고 — 이희천 김유희
 김동필 천창환

(재)한국출판금고
상임이사 — 최학수
총무부장 — 이정수
전화: 732-1434~5

등록 1987년 6월 9일-다 435
대체구좌 010041-31-2826477
발행처 — (재)한국출판금고
인쇄처 — 평화당인쇄주식회사

출판저널: 110-190 서울 종로구
 시간동 105-2 출판문화회관 2층
전화: 732-1431~3 FAX 722-1174
하이텔: chulpan 천리안 book 732

《출판저널》은 신문윤리규정 및 주간신문윤리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출판저널》 정기구독 안내

매월 5일과 20일자로 발간되는 《출판저널》은 정기구독으로 받아 보시는 것이 빠르고 편리합니다. 본사의 지로용지로 1년차 구독료 30,000원을 송금하시면 입금된 날짜의 해당호부터 책이나 사무실로 우송해드립니다. 본사의 지로용지가 없으신 분은 전국 각 은행(농협·수협·축협 포함)의 A지로용지에 본사 지로번호 3008669와 금액, 주소, 성명을 명기하여 붙임하거나 우체국 대체구좌 010041-31-2826477을 이용하십시오.

공금: 한국출판협동조합
서울 마포구 신수동 448-6
716-5616~9, 716-5621~3

출판사관리직채용(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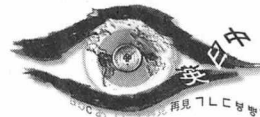
우리 출판사 경력에서는 관리직(서점영업 겸)으로 함께 근무하실 분을 모시고자 합니다.

연락전화 3453 - 3993
위 치 : 삼성동

圖書出版 景 鹿

다국어맥편집서비스

옥편, 다국어사진, 벽지관련 서적



한글판 Quark XPress에서 작업한 화일을 중국어, 일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등 기타 다국어로 4도분판 출력이 가능한 Multi-Language One Step System 탄생—한글·영어·중국어·일어·러시아어·스페인어 등을 한글판 Quark XPress 1개 화일내에서 작업하여 분판출력할 수 있는 MLOS System은 시간, 경제적인 측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외국어 인쇄매체 때문에 고민하신 분들을 100퍼센트 만족시킬 것입니다.

멀티피아 T.267-5269 F.278-6441
중구인현2가192-30 신성B/D 405

출판저널

정기구독 문의

732-1433

* 1년분(22호분)
30,000원
* 반년분(11호분)
16,000원